

크스님 수행한담

거울에 낀 먼지 닦듯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장품(刀杖品) ②

歐杖良善 구장양선
妄獲無罪 망참무죄
其殃十培 기양십배
災迅無敏 재신무사

어질고 착한 이를 매질하고
죄없는 이를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재앙은 열배로 불어나리니
그 갚음은 신속하여 용서가 없다

生受福壽 생수복壽
形體殘折 형체재절
自然痿痺 자연뇌병
失意恍惚 실의황홀

살아서는 지독한 고통을 받고
온몸이 험어지고 불구가 되며
질로 번뇌하여 병을 앓고
마음은 어지러이 증심을 잃는다

人所誣咎 인소무구
或縣官厄 혹현관역
財產耗盡 재산소진
親戚離別 친척이별

또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亦不求勝 역불구승
人愛天下 인애천하
所造無怨 소적무원

패리거나 죽이거나 태우지 않고
또한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으며
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딜 가나 원망 받지 않으리라

世黨有人 세당유인
能之慳慳 능지참과
是名誘進 시명유진
如藥良馬 여책양마

세상에 혹 어떤 사람이
제게나 남에게나 부끄러울 줄 알면
이를 일러 잘 이끄는 것이라 하니
좋은 말에 책적을 더함과 같도다

如策善馬 여책선마
進道能進 진도능진
人有信成 인유신계
定意精進 정의정진
受道慧成 수도혜성
便滅眾苦 편멸중고

좋은 말에 책적을 가하면
능히 먼길을 달려 가듯이

“이기려 말고 천하를 사랑하면
누가 그를 원망하려 하겠는가”

관가에 끌려가 액난을 당하며
재산은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피붙이는 서로 이별하리라

舍宅所有 사택소유
災火災燒 재화분소
死入地獄 사입지옥
如是爲十 여시위십

저가 지닌 집과 재산은
모두 불 타서 재가되며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리니
이와같이 열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雖裸剪髮 수나전발
長服草衣 장복초의
沐浴露石 목욕거석
奈難堪何 나치갈하

비록 비단 옷을 벗고 머리깎고
언제나 험은 옷을 걸치며
목욕하고 돌위에 굶어 앉아도
어리석은 번뇌는 어찌 하려나

不伐殺燒 불벌살소

사람이 믿음과 계율을 받아지니고
뜻을 다잡아 정진하면
능히 지혜가 성취 되리니
마침내 뜻 괴로움이 사라진다

自嚴以修法 자엄이修法
滅損受淨行 멸손수정행
杖不加群生 장불가군생
是妙淨道人 시사문도인

스스로 법담게 수행하여서
번뇌를 여의고 청정행을 닦으며
모든 생명체를 매질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문인이 도닥는 이이다

無害於天下 무해어천하
終身不遇害 종신불유해
常慈於一切 상자어일체
熱能與爲怨 속능여위인

천하에 어느 것도 해치지 않으면
한 평생 해침을 받지 않으리니
언제나 일체 중생을 지비로 대하면
누가 그를 원망하려 하겠는가

龍眼

법공스님 (도안사 조실)

육신은 영화스크린 같은 것입니다
영사기 비출때 휘황찬란하지만
영사기 멈추면 그냥 흰 천일뿐

복(福)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인연복이고
그 가운데도 스승복은 한량없는 귀한 복
입니다. 바른 스승없이 깨달음을 얻기
가 쉽지 않거든요. 나는 속세의 인연이
좋아서인지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일제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35년 봉선
사에서 운경스님을 은사로 입산했습니다.
운허스님께 경을 배우고 이어 한국불교
강(講)의 뿌리인 대 강백 박한영스님
을 계사로 사미계의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스님이 됐습니다. 이생에서 사람됨 받고
출가해 좋은 스승복까지 받았으니 그야
말로 나는 복이 터진셈입니다. 그리고 평
생이다사피한 많은 시간을 강원에서 부
처님말씀을 출가학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선방에서 20안거를 마쳤으니까
요. 그저 이제 지극정성으로 도를 닦아
성불의 피안에 도달해야 하는 과제만 남
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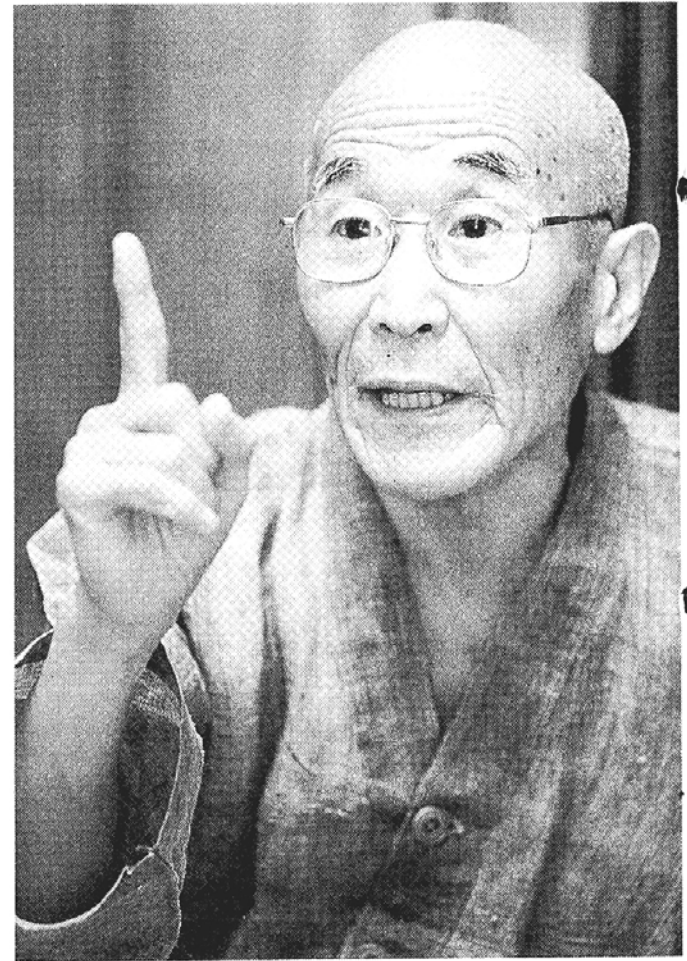
내가 불연을 맺게 된것은 종립대학인
해화전문이 생긴 그 이듬해 입학하면서
입니다. 당시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라 대
학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
습니다. 어찌보면 혜택이지요. 워낙 속가
서 살때도 책들여다보는 일을 좋아했으
니 나로서는 더욱 절된 일입니다. 해화전문
재학시절 공부에 그대도 물리가 터졌다
싶을 때인데, 그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
에 몰렸던가 봅니다. 날로 극악해지던 일
제가 학병을 차출했습니다. 나는 학병으
로 끌려가지 않기위해 광농 봉선사로 도
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보였던 절
생활이 차츰 관심으로 와닿으면서 절 사
무도 보게됐고, 불교가 어떤 가르침인지
알고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운허스님
께서 내 육구를 알아채시고는 경학을 가
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40년 고창 선
운사에서 한영스님에게 건당했거지요.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대학을 마쳐야
겠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로
이름이 바뀐 해화전문에 다시 복학했고
결국은 49년도에 졸업할 하게된 것이지
요.

돌아보면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한영스님 슬하에서 공부하던 시간이 가
장 소중했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개
운사 대원암은 최고의 강원이었어요. 청

담스님들이 1회 졸업생이고 쟁쟁했던 인
물들이 배출했습니다. 이후 봉선사 흥법
강원에서 운허스님께 화엄경을 수학했습
니다.

아름든 이세상에와 80년을 살면서 확
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은 부
처님과 정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중생
들은 생로병사를 낙으로 알고 삽니다. 또
태어나면 죽는 것인데 마치 안죽을 것처럼
애를 씁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커질니

- 1918년 서울생
- 35년 봉선사에서 사미계수계
- 40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서 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수계
- 49년 동국대 문리대 졸업
- 49년 중앙종회의원
- 65년 가평 현승사 주지
- 64년~82년 법주사 강원을 시작
- 64년 백암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서 강사
- 82년~94년 도선사 실달학원 강사
- 95년~현재 도안사 조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 말고 ‘내 안에서’ 찾으세요”

다. 또 중생들이 닦고 아끼는 몸뚱이를
부처님은 무상(無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내가 아니며 그 안의 마음
즉 자성이 ‘나’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
명은 마음이고 상락아정(常樂我淨)한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끊어진 영원
한 그 자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즐겁습
니다. 그런줄도 모르고 중생은 마음의 그
림자인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육신
은 영화 스크린과 같은 것이예요. 영사기
가 비출때만 휘황찬란하게 모든 것을 담
아내지만 영사기가 멈추면 그냥 흰 천일
뿐입니다. 이처럼 헛헛대기인 육신만 좇
다보면 쌓이는 것은 번뇌망상이요 업일
뿐입니다. 결국 잘살았다고들 하면서 전
혀 잘못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요. 가려운 내 다리를 긁는다면 실컷
남의 다리 긁고 있는 형국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도 자
칫 배운 대로 행할 때로 살기도 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부처님 삼과 정반대
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상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운은
색(色) 수(受) 상(相) 행(行) 식(識)입니
다. 색(色)은 물질이고 우리의 몸뚱이리
며 나아가 이 우주전체가 물질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등을 통해 볼수 있고 들을수

있고 냄새 맡을수 있고 맛볼수 있고 감
촉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색인 것
입니다. 수(受)는 물질과 물질의 부딪힘
곧 색과 색의 부딪힘입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에 어떤 반응이 오는 것이 수입
입니다. 상(相)은 좋다 싫다, 예쁘다 보기
싫다, 맛있다 맛없다 등의 감정이 일어나
는 것입니다. 행(行)은 상(相)뒤에 따르
는 반응행위입니다. 좋으면 취하고 싫으
면 기피하고 상을 내게 되는 그것이지요.
탐욕과 분노심을 좇아 행동하는 것입니
다. 식(識)은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반응이 자리를 잡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오운은 결코 고유한 실체가 없습니다. 서
로의 부딪힘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고유한 실체
없이 흘러가는 이 오운의 현상에 집착하
여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체도 없고 흘러
가는 것에 집착하면 그 결과는 괴로움뿐
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의 번뇌와 망상
이 깊어지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게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
장)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
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
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
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
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
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
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
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
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여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관
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명 대
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인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
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
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
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
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
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
아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
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 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
며 병고에 시달리
는 불자들을 돌보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외에 10
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

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
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 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
가 입증된 ‘새시미놀’ 성분 대량

다. 새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
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호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